

고졸신화 이진영 “내가 교과서? 참고서 정도죠”



kt 이진영이 31일 전지훈련지인 미국 애리조나주 투산의 키노 스포츠콤플렉스에서 스포츠동아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투산(미 애리조나주) | 이경호 기자

이경호 기자의 캠프 리포트

선수마다 특성 달라 내가 교과서 될 수 없어
심우준, 신체능력 좋아 훌륭한 선수 될 것
개인 욕심은 없다...kt가 명문구단 됐으면

이진영(36)은 kt에서 유일하게 올림픽 금메달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준우승 경력을 지닌 선수다. 18년간 선수생활을 하면서 2차례 프리에이전트(FA) 계약도 했다. 고교 시절 청소년대표, 1차지명을 통한 프로 입단, 한국시리즈 우승, 골든글러브 수상, 1~3회 WBC 국가대표 등 야구선수라면 누구나 갖고 싶은 화려한 경력을 쌓았다. kt에는 온갖 역경을 이겨낸 스토리를 지닌 베테랑 선수들이 있지만, 이진영처럼 처음부터 스타였고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켜낸 대스타는 없었다. 지난해 11월 2차 드래프트를 통해 LG에서 kt로 이적한 그를 새 팀의 스프링캠프지인 미국 애리조나주 투산에서 31일(한국시간) 만나 가슴속의 이야기들을 들어봤다.

-kt의 많은 젊은 선수들은 같은 유니폼을 입게 된 이진영을 동경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3회 연속 WBC 대표팀이었고, 올림픽 금메달도 뒀다. 골든글러브 수상에 2차례의 성공적인 FA 계약, 한국시리즈 우승 등 갖고 싶은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고맙게도 많이들 다가가 이것저것 물어보고 조언을 구한다. 그러나 내가 교과서가 될 수는 없다.
-교과서? 지금까지 쌓은 경력을 보면 교과서처럼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아니다. 기술적 측면을 먼저 보면 나는 절대 교과서적이지 않다. 팀에는 코치들도 있다. 더 많이 연구하고, 선수 한 명을 키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분들이다. 선수 각자의 개성과 특성이 있다. 선배라고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획일적으로 내 생각을 전달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겪은 과정, 쌓은 경험 등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본다. 교과서는 아니지만 참고할 부분은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다.
-이진영은 마지막 생방송 선수다.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 '프로야구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야 할 정도다.
-(크게 웃으며) 그렇다. 18년이 지났다. 후배 선수들에게 건강한 경쟁에 대해 말해주고 싶다. 지금까지 굉장히 훌륭한 선수들과 주전경쟁을 해왔다. 건강한 경쟁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다. 안주하지 않고 더 노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같은 자리에 경쟁선수가 있다고 낙담하거나 마음 상하지 말고, 건강하게 경쟁하겠다는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했던 것 같다.
-젊은 선수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라는 것이 느껴지나?
-예전에는 나 혼자만 생각해도 됐겠지만, 이제 보는 눈들이 많다. 젊은 선수들에게 흉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지 않겠나? 물론 신체적인 능력은 이제 그들에 비해 부족하다. 그래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사실 kt에 입단해 스프링캠프를 보내며 자주 느끼는 점이 있다. 더 젊은 선수들 몇 명이 참 부럽다.
-누가 부럽다는 것이냐?
-“지금까지 프로에서 보낸 시간보다 훨씬 큰

가능성과 미래가 그들에게 있다. 그리고 야구 선수로 굉장히 부러운 신체적 능력이 보인다. 장담하는데, kt 선수들 중 앞으로 굉장히 훌륭한 선수가 몇 명 나올 것이다. 눈에 확 띄는 선수들이 많다. 심우준은 물어보니 넥센 김하성 이랑 동기라고 하더라. ‘우준아, 지금은 김하성이 주전이고 스타가 됐지만 네가 갖고 있는 많은 능력은 정말 대단하다. 부러울 정도다. 넌 훌륭한 선수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칭찬이 아닌 진심이었다.
-그동안 선수로서 많은 것을 이뤘다. 앞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
-“이제 개인적 욕심은 아무것도 없다. kt로 이적했다. 우리 팀이 신생팀에서 명문구단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다. 그것이 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캠프에 와서 크게 느낀 점이 있다. 조범현 감독과 코치님들이 신생팀이기 때문에 선수 한 명이라도 더 키우려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 모두 함께 좋은 성과를 올렸으면 좋겠다. 진심이고 간절하다.”

투산(미 애리조나주) | rush@donga.com



투수 자원 보강 절실한 삼성 배영섭 햄스트링 부상 약재

야수진 운영 빨간불...트레이드 계획까지 차질

삼성 외야수 배영섭(30·사진)이 29일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으로 중도 귀국했다.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상태가 심각하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활을 마치면 3월 시범경기부터 뛸 수 있다. 그러나 배영섭의 부상 자체가 아니라, 부상이 물고 올 파급 효과가 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삼성이 투수력 보강을 위한 트레이드를 타진하고 있다는 얘기는 야구계에 파다하다. 삼성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마무리 임창용(40)을 방출했고, 선발 윤성환(35)과 셋업맨 안지민(33)도 제약을 받고 있다. 윤성환과 안지민은 아직 경찰 소환조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 ‘무죄 추정 원칙’ 속에 삼성의 판 전지훈련에 동행하고 있으나, 협의 여부가 가려질 시점이 임박했다. 야구계에선 “설령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여론의 정서를 고려해 삼성이 개막전부터 바로 두 투수를 출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야구계에 사회적 소란을 끼친 데 대한 일종의 근신기간은 필요하다는 견해다.

‘삼성발 트레이드’의 진원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이미 지난해 한국시리즈를 통해 삼성은 두 투수가 없는 현실의 한계를 절감했다. 두 투수가 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줄 만한 전력은 절실하다. 결국 투수를 보강하려면 야수를 내주는 것이 필연적이다. 삼성 야수진의 층은 두껍다. 이런 와중에 배영섭의 부상 이탈은 삼성 야수진 운영에 일시적으로나마 빨간불이 들어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야수진에서 구멍이 커질수록 트레이드를 통한 투수력 보강이라는 삼성의 계획 역시 시작도 전에 막힐 수 있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KIA 2군, 내달 4일까지 대만 전지훈련

KIA 2군이 1일 대만으로 출국해 3월 4일까지 타이난 진리대학 야구장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한다. 이번 전후에는 정희열 2군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 7명, 선수 27명 등 총 34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스프링캠프 초반(2월 2~14일)에는 체력 및 기술, 전술훈련을 소화할 예정이며, 15일부터 한국 2군 팀 및 대만 팀들과 11차례의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합평에서 훈련하던 최영필, 김병현, 김광수, 양현종, 윤석민, 이성우, 김민우, 김원섭, 김주찬 등 9명은 1일 일본 오키나와로 건너간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kt 조범현 감독(오른쪽 끝)이 31일 전지훈련지인 미국 애리조나주 투산의 키노 스포츠콤플렉스에서 투수 최대성(왼쪽 끝)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투산(미 애리조나주) | 이경호 기자

新 스프링캠프 시대, 감독이 선수들 컨디션 챙긴다

“시대는 변했다. 감독도 달라지겠다.” 한국프로야구에는 1942년 태어난 70대 감독과 1971년 출생한 40대 중반 사령탑이 공존한다. 그만큼 각 팀의 색깔은 스프링캠프 일주일만 큼이나 다르다. 전통과 혁신이 교차한다. 어떤 선택이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끈임 없는 논쟁이 이어진다. ‘구시대적’이라고 비판했던 지옥훈련이, 달라진 성적과 함께 ‘역시 유일한 해답’이라는 찬사를 듣기도 한다.

kt 조범현 감독은 2003년 43세에 감독이 됐다. 감독 세대교체 바람, 40대 사령탑 돌풍의 주역이었다. 그로부터 13년이 흘렀다. KBO리그에서 가장 젊었던 감독은 56세 베테랑 사령탑이 됐다. 조 감독은 31일(한국시간) “시대는 변했고 선수들도 바뀌었다. 나도 달라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미국 애리조나주 투산의 키노 스포츠콤플렉스에 차려진 kt의 스프링캠프 분위기는 지난해와 많이 달랐다. 지난해 일본 미야자키와 가고

시마 스프링캠프에선 “힘들어 죽겠다”, “이런 훈련은 처음 해본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각 팀에서 모인 선수들은 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던 신인들 및 젊은 선수들과 함께 받는 강도 높은 훈련을 힘들어했다. kt는 한화와 더불어 훈련량이 가장 많은 팀으로 꼽혔다.

1년이 흐른 2016년 스프링캠프, kt는 여전히 공식적인 야간훈련이 존재하는 몇 안 되는 팀들 가운데 한 곳이다. 오전 8시와 오후 7시, 매일 인원을 바꾸는 가운데 선수들이 번갈아 아침훈련과 야간훈련을 소화한다. 상대적으로 훈련시간은 타 팀에 비해 길다. 그러나 중간 중간 여유시간은 훨씬 길다. 시간적 여유가 있어 훈련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하다. 특히 몸이 무거워 보이는 선수가 보이면 쉴 수 있도록 배려한다. 박경수, 김상현, 김사울 등 베테랑 선수들은 폼, 사이판, 일본 고치 등에서 개인훈련을 하며 스프링캠프를 준비했다. 체력적 준비가 끝난 상태로 스프링캠프를 시

작해 표정이 한결 밝다.

조 감독은 “예전에는 훈련을 안 하면 나부터 불안했다. 그러나 그동안 보낸 많은 시즌을 돌아봤다. ‘훈련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성적이 좋았나?’라고 되물었다. 선수 개인의 특성과 다름이 보였다.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하는 훈련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다시 느꼈다”고 밝혔다. 조 감독은 말을 이어가던 도중 몸이 무거워 보이는 조부근을 훈련에서 제외시켜 휴식을 취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예전에는 캠프에서 몸을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스케줄이 빠듯했다. 이제 베테랑 선수들부터 알아서 몸을 잘 만들어 온다. 각 코치가 스케줄 안에서 훈련강도를 잘 조절해달라고 했다. 1시간 계획이라도 10분 만에 끝낼 수 있는 재량도 줬다. 많은 것이 달라졌다. 앞으로 더 많이 변화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감독의 하부는 바빠 보였다. 젊은 선수들, 아직 제 기량을 꽃피우지 못한 선수들이 많은 팀

kt 조범현 감독 “시대가 변했으니 바뀌어야” 선수들과 대화 늘고 야간훈련때는 개인지도

이다. 스스로는 “나야 뭐 할 일이 있다. 지나가면서 힘내라고 농담이나 하고 그러는 거지”라며 웃지만, 오전 8시30분 코칭스태프 회의로 하루를 시작한다. 벤치파킹을 하는 최대성을 붙잡고 “다 잘 던지려 하지 말고 지금 모습만 유지해도 충분하다”며 격려하고 외국인선수들과 대화하며 빠른 적응을 도왔다. 점심시간에는 선수들의 식사량을 보며 컨디션을 살핀다. 복습이 필요한 선수들이 참가하는 야간훈련 때는 최근 영입한 포수 이희근을 직접 붙잡고 한 시간씩 직접 지도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 kt로 이적한 베테랑 이진영은 “지금도 감독님은 어렵다. 그러나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선수들과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느껴진다. 젊은 선수들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훈련시간은 다른 팀에 비해 길다고 한다. 그러나 그 안에 조절과 배려가 있다. 재미있게 캠프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투산(미 애리조나주) | 이경호 기자



슈가 레이 마린론(왼쪽)과 요한 피노

kt 용병 피노·마린론 “술은 절대 안 마셔요”

지난해 결혼·천주교 신자 등 다툼

kt 조범현 감독은 31일(한국시간) 스프링캠프지인 미국 애리조나주 투산의 키노 스포츠콤플렉스에서 빙그레 웃으며 외국인투수 요한 피노(33)와 슈가 레이 마린론(28)에게 다가갔다. 조 감독은 “두 명 다 한국에 새로 왔는데, 트레이스 밴와트와 함께 회식을 잡아야겠다”고 말하고는 먼저 피노에게 “음식은 필 좋아하느냐?”고 물었다. 통역을 통해 피노는

“한국음식을 말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에 조 감독이 “아니다. 투산에서 먹고 싶은 것이 뭐가 있느냐? 그리고 술은 어떤 종류를 좋아하느냐? 저녁 먹으며 와인을 가볍게 한 잔 해야 하나?”라고 재차 물었다. 피노는 “다 잘 먹는다. 그런데 술은 마시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한 모금 마신 게 2년 전이다”고 대답했다.

조 감독은 “술은 전혀 안 하는구나”라고 웃으며 마린론에게 똑같은 질문은 했다. 마린론

에게서 돌아온 답도 비슷했다. 마린론은 “닭고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술은 입에 대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감독은 “밴와트가 ‘코리아 바비큐’를 좋아한다고 하니 한국식당에 가서 갈비를 사줘야겠다”며 돌아섰다. 피노와 마린론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다. 또 둘 다 지난해 결혼한 신혼이기도 하다. 메이저리그는 음주에 대해 관대한 편이지만, 마린론과 피노 모두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는 것까지도 동일했다. 성실하고 동기부여가 확실한 것도 두 외국인투수의 긍정적인 공통점이다.

투산(미 애리조나주)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